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3월 24일(금)
..(음력 2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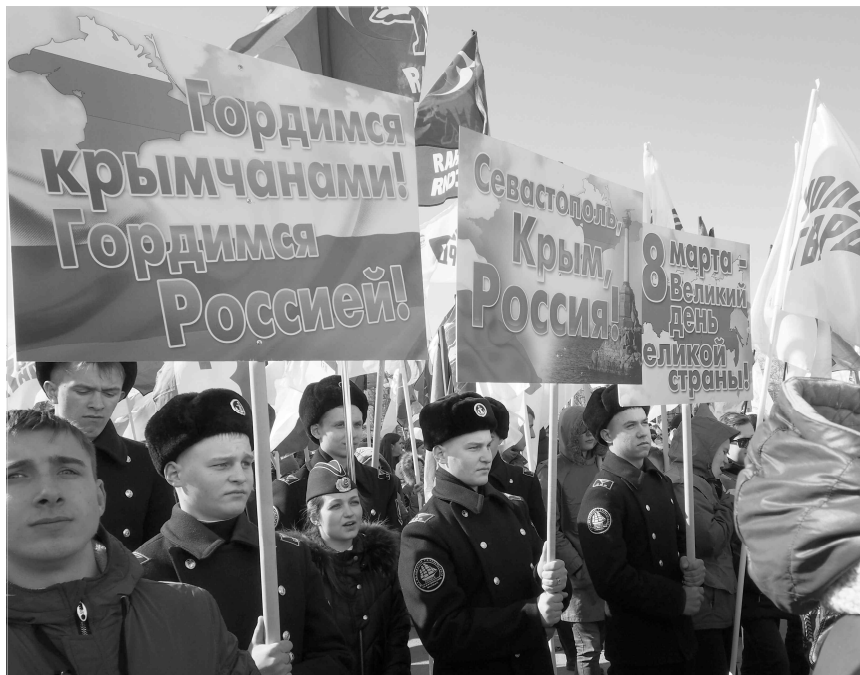
Пятница

24 марта 2017 г.

№ 11 (11672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3월 18일 러시아, 그리고 사할린 여러 지역에서 크림·러시아 합병 3주년 기념 행사들이 펼쳐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정부 청사앞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집회공연에 참가했다. (이예식기자 촬영)

러일, 쿠릴 공동경제활동 문제 논의

지난 20일(월) 일본 도쿄에서 러일 외무·국방 2+2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성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쿠릴열도에서의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전에 이 문제로 양국 외무 차관급 협의회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양국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이번 2+2 회담에서 지역의 안전과 국제적인 주로서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일본에 쿠릴에서 공동협력할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제안을 하기 전에 일본은 쿠릴에서 수산업, 관광 및 보건 방면에 있어 공동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는 러일 간 무비자협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트로이츠크예와 노워트로이츠크예, <사할린-2> 가스로 넘어간다

얼마 전에 소집된 사할린주가스동력개발청 지도부 회의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국장은 사할린에 지역가스화사업 상황을 보고했다. 2016년 사할린의 가스화사업은 지역 내 80km에 도시가스설비가 건설되었다.

사할린주 내 가스화사업은 2009년부터 <가스프롬>회사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사할린주는 부락 내에 가스배관설계와 가스소비에 따른 시스템을 준비하고, <가스프롬>은 부락 간 가스배관망 설치와 가스공급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가스화사업은 2009년에는 8.1% 2016년에 13.1%까지 확대되었다. 가스화사업으로 사할린주는 예산에서 46억 루블리를 책정했다.

2016년에 사할린의 가스화공사는 11억4천2백만m³에 달한 가운데 2013-2014년에 시작된 가스공급시설의 일련의 과정들은 마무리되었다. 노글리키에서는 천연가스공급시스템의 재건설이 끝났고, 티몹스코예와 야스노예촌에는 가스배관망 건설,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었고 티몹스코예 또한 보일러 설계안이 완성되었다.

티몹스코예 같은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4km 가스배관망이 건설, 약 5천 가구가 가스공급을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되어있지만 계획안에 따라 가스는 2018년에 공급할 전망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2016년에 베레즈냐키촌, 25번가 주택단지에 가스배관망 건설을 마쳤고, 달네에 구역에는 1차로 가스배관망을 건설하여 <페도토브> 근재공장 근처 현장내 가스배관이 설치되었다.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현재 두 번째 압축가스충전소가 건설 중이고 50개 생산, 산업공장에 가스화 설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약 6천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남부지역, 트로이츠크예와 노워트로이츠크예 부락들이 <사할린-2>프로젝트의 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단신

러시아연방사회원 위원으로 갈리나 주바 선출

3월 21일 사할린주사회원 회의에서 사할린주를 대표하는 러시아연방사회원 위원 선거가 있었다. 후보로 갈리나 주바, 이고리 구사와 빅토르 고르바츠가 나섰는데 다수가 결로 사할린주사회원 부위원장인 갈리나 주바 <사할린지역 아우지트(감사)회>지역사회단체 회장이 선출되었다.

러시아연방사회원 위원 임기는 3년이라고 사할린주사회원은 알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탈란트>청소년축제 개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탈란트(재능)>청년예술축제가 개최된다. 이에 3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음악>, <댄스>, <연극과 독창적 장르>, <방송>과 <공간예술>부문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경쟁하게 된다. 축제의 참가신청에 170개의 신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주중앙도시 학교, 전문학교,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네벨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트로이츠크예, 달네에의 청소년예술단들이 참가하고 먼 세와스토폴리에서도 한 참가자가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국립대에서는 <연극, 독창적 장르>부문에서 중국(4명)과 일본(1명)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콩쿠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참가 상황은 <공간예술> 부문에서는 약 62명, <연론> 부문은 가장 인기를 모아 약100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공간예술>, <댄스> 부문에서 장애우들의 참가가 이뤄진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3월 26일(일) 사할린국립대 제4관(컴뮤니티체스키 프로스펙트 33)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자선갈라 공연에 시민들을 초대한다. 이날 모금되는 기금은 사할린주민 아나스타시야 사포노와와 마트웨이 아우하제예브 치료비로 전달할 예정이라 전했다.

사할린 원주민 소수민족 대표 전국대회 참가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야말로네네츠키 자치구 살레하르트시에서 제8회 원주민 북방·시베리아·극동지역 소수민족 대회가 개최된다. 사할린주대표단은 주내 7개 구역을 대표하는 닙흐, 우일타, 나나이, 예벤크 민족으로 구성된 10명이 떠난다.

전국 원주민 북방소수민족 대회는 4년에 한번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사할린대표들은 이곳 사할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원주민 소수민족 20-21>민족프로그램과 연합회장 선거, 토지, 전통적 삶과 문화양식, 미래에 세대계승의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4부문(전통경제사업 공동체, 청년정치, 자연이용의 책임, 사회적 환경)으로 이뤄지는 원주민 포럼에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산스(기회)>가족건강회복센터 설립자이자 센터장인 최 엘레나는 작년 3월 18일자 2면 기사의 주인공으로서 최근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몇 개월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장애인 아동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인 4세이며 러시아 인기 가수인 최(초이) 아니타와 만날 기회가 있다며 새고려신문을 위해 인터뷰를 해보겠다고 했다. 일부 질문은 신문사에서 준비했고 일부는 본인이 했다.

- 아니타 씨가 첫 앨범 녹음하신 지가 20년이 되었고 그때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활동하시면서 러시아인들은 아니타 씨를 가수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타 씨가 좋아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노래가 있는지요?

- 제가 부르는 노래들은 저에게는 다 의미있고 또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최 워트르에게 바치는 노래 <비행>으로 시작했었는데 이 노래는 상징적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이 20년이란 기간은 계속 위로 올라가는 비행이거든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위로 올라가는 비행말입니다.

<나를 지켜줘>, <하늘> 노래 같은 경우 여성으로서 어려울 때마다 늘 찾는 노래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너의 A>라는 노래가 말해주고 있죠. 또 다들 잘 아시는 우리의 민요 <아리랑>,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만 저는 바로 이 노래로 새로운 쇼 <10/20>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가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목표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냐는 것이죠. 저로서 이런 삶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해요.

- 한편 여성으로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면을 보이면서도 강하고 또 의욕이 왕성한 모습으로 가수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결혼식의 사이즈>TV방송도 진행하시고, 자신의 쇼도 직접 연출하시고 가사일까지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시는 비결은요?

- 이렇게 성공하는 데에 인생의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면성 말입니다. 저희 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아니타가 하루에 24시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 일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아티스트가 아니었으면 조직통신 부문에서 일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니타 최: 내년 봄 사할린 경유해 한·일·중 공연 계획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는 동포가수



그리고 우리 팀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피로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다 같이 휴가를 갑니다.

- 10/20 마지막 쇼는 소망을 이루는 주제인데 아니타 씨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까?

-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복을 나누고 자기가 좋아하는, 중사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죠. 크게 보면 이런 면에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니타 씨의 쇼를 항상 칭찬합니다.

- 연출, 의상, 무대 장식 등 전문적으로 훌륭한 소로 인정받고 있죠. 그동안 색다른 10개 쇼를 준비했었는데 거의 모두가 명망있는 상을 수상했고 그중 기술혁신상도 수상했어요. 이번에 10번째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 기술도 많이 높아졌다는 걸 느껴요. 화물 트럭 3대(150장 의상)의 의상, 많은 조명·음향 기술자, 고급수준의 발

레단(13명) 등이 그외 여러 전문가들 - 모두 다 우리 팀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전에 부르던 히트곡도 많고 신곡도 많은데 많은 곡을 새롭게 연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쇼에는 동양의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인도, 한국, 중국 민족의 소리들을 듣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용하는 악기 중 우리민족 가야금과 해금도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최고 바이올린리스트와 피아노 독주자도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바람직하고 건전한 쇼예요. 무엇보다 꿈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 선생님이 자선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세요.

- 자선, 봉사활동을 제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심각하게 척추를 다쳤었는데 저를 세우려고 남편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제가 나온 후 한 장애아단체가 저를 찾아와 노래교육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들을 찾아가서 휠체어 없이 있거나 목발을 이용하거나 또는 뇌성마비 아이들을 봤을 때 눈물이 나서 아무 것도 못한 채 도망치다시피 했습니다. 저에게 또 한번 연락이 와서 그때 다시 찾아가 이 아이들에게 <엄마>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5-12세 정도의 장애아들은 무대에 목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아무 도움없이 용감하게 서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바로 그때 진심으로 돕는 자선가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모스크바 라이온스 클럽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아니타>라는 자선폰드를 열고 근골격계 장애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죠. 물론 고아들도 돕고 다자녀 가족도 도왔죠.

이 봉사자선사업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특히 수술 지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이 나지 않아 자선사업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선은 아주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무대에서 은퇴하면 많은 일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저 가

꿈 돕고 있는 뿐입니다.

- 동포로서 민족성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한국말은 하시나요?

- 네, 좀 배웠고 대담하게는 아니지만 좀 합니다.

- 아니타씨는 고려인단체들과 잘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에 러시아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할 때 여러 기념행사가 펼쳐졌는데 선생님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종 갈라공연 연출감독으로 나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기념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행사에는 참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러시아 고려인 이주 150주년 대공연 연출감독 제안을 받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 고려인역사 등 자료를 많이 파악하고 이에 많은 감동을 받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이주 80주년 행사로 저희 쇼프로그램을 이번 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는 가을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제가 유럽 공연 때문에 딱 하루 내어 한 행사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 아니타 씨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앙에서 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극동, 특히 사할린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할린에서는 꽤 많은 동포들이 살고 있거든요.

- 잘 압니다. 2012년에 극동 블라고웨렌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할린까지 못 가는 이유는 너무 멀고 너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치타까지만 갑니다. 더 멀리 못 가는 이유는 2018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에 동양나라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 공연을 가질 계획인데 그때 순회공연을 블라고웨렌스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극동에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사실 사할린에 한번 가보는게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을 내주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데 대해 아주 감사합니다.

이 모 저 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음악예술창작 콩쿠르에서 사할린 참가자들 모두 수상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3회 국제콩쿠르축제 <어린시절의 명절>이 개최되었다. 콩쿠르에는 약 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라트비아에서도 참가했다.

사할린의 <에트노스>학교에서는 학생 7명(바얀 전공자 4명, 돌라 전공자 3명)과 교사 3명이 떠났다고 전했다. 사할린 청소년 음악가들은 6 부문의 독주와 3 앙상블이 출전했다. 모든 사할린 참가자들은 우승자와 수상자가 되자 콩쿠르 조직위원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학생들이 상을 휩쓴 것에 좀 당황한 듯했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민속악기 앙상블(강사 왈렌찌나 밀로와와 엘레나 바란니코와, 악장 안나 피네센코, 학생 와실리사 돌구시나, 크세니야 코조파소와, 울가 세브첸코, 폴리나 막슈찌나, 이리나 크라스노와, 예카제리나 탄넨베르그)은 대상을 받아 상금 3만 루블리와 그리고 내년 블라디미르주 수즈달에서 개최될 <황금 전설>콩쿠르에 참가초대권을 받았다.

예술가상 수상자 1위는 바얀 트리오와 독주 와실리사 돌구시나가 차지했고, 2위는 독주 예고르 슺찌하류크, 폴리나 막슈티나, 이리나 크라스노와가 수상했다. 그외 이리나와 폴리나나의 돌라 듀엣이 2

위를 차지했고 독주 크세니야 코조파소와 울가 세첸코는 3위를 차지했다. 울리야 플르트니코와는 최우수 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트노스>학교 측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러한 수상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진정한 승리라고 전했다.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музык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и один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участников не остался без награды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16 по 19 марта прошел XXI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фестиваль музыкаль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аздник детства". Конкурс собрал более тысячи участников — не только из нашей страны, но и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Белорусии, Казахстана, Латвии.

От школы "Этнос" на конкурс отправились 7 учащихся (четверо баянистов, трое домристов) и тро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илами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шесть сольных выступлений и три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ей. Все сахалинские участники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и призерами конкурса. Оргкомитет был немного растерян: приех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забрал столько наград.

Ансамбль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детской школы "Этнос"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алентина Милова и Елена Бараникова, концертмейстер Анна Пинещенко, учащиеся Василиса Долгушина, Ксения Козопасова, Ольга Шевченко, Полина Максютинна, Ирина Краснова, Екатерина Танненберг) получил гран-при, сертификат на 30 000 рублей и приглашен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конкурсе "Золотая легенда" в городе Суздаль.

Лауреатами первой степени стали трио баянистов и солистка Василиса Долгушина, дипломы лауреатов

второй степени получили солисты Егор Стихарюк, Полина Масютинна, Ирина Краснова. Ира и Полина завоевали второе место еще и в дуэте домристов.

Солисты Ксения Козопасова и Ольга Шевченко стали лауреатами третьей степени.

Юлия Плотникова получила диплом лучшего концертмейстера.

Это настоящий триумф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ообщает школа "Этнос".

사할린 고학년생, <금융의 세계>로 초대

사할린주재정부는 주교육부와 공동으로 <금융의 세계>라는 주제로 창작품 콩쿠르 개최를 공시했다. 콩쿠르는 사할린주 내 교육기관의 9-11학년 학생들 중에서 재정적 독립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로서 가정이나 개인의 예산 작성의 훈련을 조성하고 금융지식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된다. 콩쿠르 참가자들은 재정에 대한 주제로 4개의 부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한다.

부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용돈은 재정적 자립의 시작이다.>, <우리 가족 예산에 나의 개인적 기여>, <어디에서 돈이 생겨날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콩쿠르 출품작은 3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레닌 거리, 111, 사할린주교육진흥원, 인문과 (11호실)에서 받고 있으며 그리고 kafedrago.iroso@mail.ru 로 <금융의 세계>창작품 콩쿠르 제목으로 보낼 수 있다.

콩쿠르의 결과는 4월 20일에 발표되며 상장과 기념품으로 우승자들을 시상한다고 주재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8면에 계속)

대구청년들, 사할린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하는 <대구의 밤> 개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6일(목) 유즈노 사할린스크 <가가린>호텔 연회장에서 민족통일 대구시청년협의회 주최로 <대구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잘 아시다시피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 대표단은 이미 11년째 사할린을 찾아 해마다 <대구의 밤> 행사를 가진다.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김춘경

박영자)의 공연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돋우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과 주한인여성회(회장 김혜철) 회원들인 박위석, 강상욱 등의 가장 또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대구대표단과 함께 온 채민 한국가수의 열띤 무대는 사할린동포들에게 무엇보다 좋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흥겨워진 관객들은 자리를 나와 춤판을 벌였다. 채민가수는 '그남자'라는 타



<소망>어린이창작협력회 회장은 제11회 <대구의 밤> 행사를 열었다. 항상 이 행사 진행자로 나선 김춘경 회장은 이번에도 역시 한국어, 러시아어로 사회를 재미있게 이끌어갔다.

이날 <에트노스>학생들의 부채춤을 비롯한 무용은 화려하게 무대를 수놓았다. 이복순 할머니의 <잃어버린 30년> 가창은 뜨거운 환호



를 받았다. 노래교실의 <무궁화>할머니 중창단(지도 김춘경), 얼마 전에 첫 무대에 나선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무궁화>아마추어 무용단(지도

이들곡으로 최근 한국 내의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이날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장은 한국손님들을 따뜻히 환영하며 대구에서 방문한 손님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하태균 대구청년협의회 회장은 "사할린 한인들 앞에서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할린동포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회원들과 함께 사할린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렸다. 작년부터 대구에서 이미 2회째 <사할린의 밤>을 개최하는 하 회장은 시한인회, 여성회를 비롯한 사할린관계자들을 내년 행사에 꼭 초대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취재: 글/박영자, 사진/이예식)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한편 외교부는 영주귀국 지원 대상을 현재의 한인 1세에서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1인으로까지 확대하면 그들의 국적국인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인구감소의 우려 때문에)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외교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국 국민을 위해 외교적 마찰에 적극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외교부의 주요 역할이고 책무이지 않은가. 그런데 오히려 외교 마찰을 걱정하고 남의 나라 눈치 보느라 정작 우리 동포들의 갈급한 요청을 외면한다면, 그런 외교부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외교부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 관련 소관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영주귀국 및 국내정착 지원 관련 주요 업무와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지만, 이 또한 사할린 한인 문제를 단지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공동의 영주귀국 사업으로만 바라보는 외교부의 협소한 시선을 드러낼 뿐이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 관련 사안은 한일 공동의 영주귀국 사업만이 아닌, 그 외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할린 현지 동포 지원과 영주귀국자의 국내 정착, 그리고 대일본 개인청구권까지, 사실상 외교부가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외교력의 차이인가, 의지의 차이인가?

이처럼 한국 외교부가 직무 유기에 책임 회피로 일관할수록,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외교 행보가 더욱 돋보이는 게 사실이다. 패전 이후 일본 정부는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크게 두 번에 걸쳐 자국민을 귀환시키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일본은 스스로 사할린에 잔류하기를 선택한 자국민에 대해서까지, 관련법 제정을 통해 귀환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 자손들도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시켰음은 물론이다.★

그러면 일본은 과연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일본의 국력 혹은 국력이 한국보다 훨씬 높기에 마찰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 설혹 일본의 국력과 외교력이 한국보다 뛰어나도 해도, 현재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호하지 못할 만큼 굴욕적인 위치에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할린 한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보이는 한일 양국의 차이는, 외교력이 아닌 의지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이런 상황에서 사할린 한인 중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자신의 아내와 큰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두 명과 함께 일본으로 영주귀국한 것이 지난 2005년 KBS스페셜 <사할린25시>를 통해 방영되었다. 오랜 세월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버텨왔지만 결국은 일본인이 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한 가족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외교부는 과연 무슨 말을 들려줄 수 있을지, 나는 그것이 못내 궁금했다.

★ - 「중국잔류방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귀국 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994년

과거청산, 동포들 끌어안을 때 가능해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일 공동의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된 것도 한국보다는 일본의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94년 '무라야마 담화'로 대표되는 일본의 과거청산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그 시기에 일본 정부와 여당은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사할린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이는 비단 영주귀국 사업만이 아닌 사할린 현지에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지어는 사할린 잔류 한인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진행된 일본 정부의 과거청산 움직임은, 그들 스스로 '인도적 지원'이라 못박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철저히 제한적이었다. 훗날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는 이마저도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산 문제를 들어 영주귀국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그 한계가 명백할 수밖에 없음이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의 이 같은 제한적이고도 가변적인 과거청산 움직임에 한국 정부가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와 관련하여 별다른 외교 조치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밝힌 바 있다.★

★-(2011.8.30. 자 2006 헌마 788)

(계속)

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

한반도와 그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건국대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 간사

지난 번에 기사가 게재된 이후부터 한국 정국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왔는데 그중 다수는 불안하고 부정확하며 선정성 있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의하면 한국은 완전히 혼란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즉 수백만 명이 참가하여 지속되는 시위, 재벌 총수들의 전례 없는 구속, 진행 중인 대통령 탄

핵과 관련된 무책임한 보도 등입니다.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의해 <테러국가>로 몰리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소련시대 그리고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지지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젊은 지도자

가 과거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권력을 몽땅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는 국내와 국외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자신과 국가 및 국민에게 무엇이 더 좋은가를 자신이 결정하는 수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그에게는 형도 아니고 심지어 러시아는 누이도 아닙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XVI в. – это период, когда в Корее начали массово возникать и активно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конфуциа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и не столько с подач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но в основном – в провинциях и районах. Возникновение этих учреждений стало следстви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еоконфуцианства и среди простого народа. Усил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элиты, которая с начала XV в. неустанно воспитывала народ в духе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рали, принесли свои плоды.

В XVI–XVII вв. также получил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оюзы хяняк (деревенский устав) – своеобразная форма деревенск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Задачи хяняков были разнообразны и зависели от местных условий. Обычно они отвечали за поддерж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наказывали мелких правонарушителей, воспитывали своих членов в духе конфуцианской морали,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местные школы, проводили общинные конфуцианские ритуалы. Выполняли они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функции – помогали бедным, выдавая кредиты на крайние нужды, организовывали общественные работ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хяняков по обыкновению все жители деревн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ословного статуса.

Другие учреждения, получивш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этот период, – это конфуцианские храмы славы – совоны. Подобно другим учреждениям Чосон, они имели китайский прототип, но именн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олучили невидан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 XVIII в. совонов в Корее было больше, чем в Китае). Совон представлял из себя гибридный храм, школы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клуба. Центром была часовня, посвященная памяти какого-либо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ли китайского деятеля. При часовне действовал небольшо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обычно включал частную школу и библиотеку.

В сововах местные конфуцианцы встречались, ве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поры, устраивал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тихосложению и философские диспуты. Первый в Корее совон был основан в 1543 г. и был посвящен памяти Ан Хяна, корейск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учения Чжу С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совоны пользовались поддержкой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а ван даже периодически делал им финансовые и земельные пожалования, не слишком впрочем большие. Однако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совоны все меньше вызвали благосклонность властей. Они превратились в центры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активно критиковали местную и центральную бюрократию. Численность их быстро росл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осла сила и авторитет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Власть пыталась ограничи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вонов, однако до XIX в. эти усилия не были успешными.

В 1471 г. в силу вступил «Великий свод закон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ом», который действовал до середины XVIII в. В своде детально описывалис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стройство Кореи и норм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ее бюрократического аппарата, однако уголовному праву там было уделено мало места. В тщате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ом уголовном праве н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тому что Чосон использовало китайское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Приговоры выносилис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ин люй» – огромным и подробнейшим кодексом династии Мин,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аже после ее падения.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жизни Кореи этого периода играл институ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на чиновничь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олжности. Этот институт, как и другие, ориентировался на китайские образцы, хотя и не полностью. В Китае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жестко закрепленного и передающегося по наследству сословного статуса, экзамены носили характер испытаний на право войти в ряды элиты, путь этот был открыт теоретически любому желающему (на практике бедные разумеется имели намного меньше шансов, чем богатые, поскольку обучение было делом очень дорогостоящим).

В Корее же к экзаменам допускались лиш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сподствующего класса – янбанов (дворян).



Рисунок 1. Совон в Андоне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ый Кёнса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Корее и вокруг нее?

С момента выхода последнего очерка рубрики каждый день поступали новости о Корее и связанные с ней известия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большей частью тревожные, неточные и отрывочные. Южная Корея, если верить тому, что писали и говорили, оказалась чуть ли не в полном хаосе: в стране не умолкающие миллион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е аресты глав чхеболей, допросы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кая ракету, приравнена Вашингтоном и союзниками к странам с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Пекин и Москва, поддерживавшие КНДР в советскую эпоху «пролетар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и в шестисторонних переговорах, отвернулись от нее. Нет сомнения, что сегодня молодой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зял в свои руки всю полноту власти, как это сделали в свое время его дед и отец. Он стал вождем, которому никто ни в стране, ни за пределами ему не указ, и он сам решает, что лучше ему, стране и народу. И Пекин ему не брат, и Москва ему не сестра. С момента прекращения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произошли заметные изменения в расстановке сил стран-игроков вокруг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хожа теперь на одинокую точку, Китай – на черту, связанную с Россие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не порывающую полностью с западным треугольником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Япония). Россия тоже, как и Китай, пытается разыграть с пользой для себя северокорейскую карту. Разобраться со всем перечисленным непросто...

Напомню, что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пыхнул политический скандал, связанный с обвинениями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и её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в коррупции и разглашении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борьбы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страны и небывал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ктив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9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234 из трёхсот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импичмент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иостановили её полномочия. 10 март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Южной Кореи вынес утвердительный вердикт по делу об импичменте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решение поддержали все восемь судей. Она признана виновной в том, что нарушила закон, позволяя своей близкой подруге Чхве Сун Силь вмешиватьс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ла. Она стала первы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 избранным лидером Южной Кореи, отстранённым от власти. В течение 60 дней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лжны быть проведены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Голосование назначено на 9 ма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не спешил с решением, так как после его оглашения оставалось бы всего 60 дней для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Времени, так сказать, в обрез, ведь к финалу пока не готовы н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Чаю Хангуктан»), носившая до скандала название «Партия новых рубежей» Сэнуридан; ни крупнейшая оппозиционная «Объедин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Дэбуро» (Дэбуро минджудан), не говоря уже о мелких. Перед консерваторами и демократами стоит непростая задача лоббирования в сознание избирателей своего кандидата на пост главы страны. Демократы могут быть довольными, рейтинг Мун Ддже Ина, несмотря на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перепады, остается самым высоким, а преследующие его в гонке соперники заметно отстают от него. Тут стоит вспомнить, что до конц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спех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е прочили отставному Генеральному

секретарю ООН Пан Ги Муну. Но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он быстро сошел с дистанции.

Мун Чжэ Ин остается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кандидатом в президен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Если бы выборы состоялись в начале марта, за не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и бы 29% избирателей. За ним следует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Ан Хи Чжон – 19%.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ван Гё Ан – 11%. Далее следуют мэр города Соннама Ли Чжэ Мён с показателем 8% и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родной партии Ан Чхоль Су, сохранивший прежний уровень в 7%. Значительный отрыв лидера гонки – не есть гарантия его победы, так как практика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показала, что интрига остается д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Тем не менее,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в случае прихода в Голубой дворец Мун Чжэ Ина следует ожидать отход от жесткой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зиции, заложенной Ли Мен Баком, продолженной Пак Кын Хе. На Севере Кореи тем временем продолжалась лихорадочная разработка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способных долететь до Калифорнии, и новых, более мощных ядерных зарядов. При этом Пхеньян требовал прекращ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вывода 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йск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надежных гарантий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т.п. К Северу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общество предъявляет лишь одно требование – свернуть ракетно-ядерную программу, ч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ный процесс.

13 февраля в новостных лентах все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агентств прошла сенсационная новость об убийстве в аэропорту Куала-Лумпура 45-летнего Ким Чен Нама, сводного (по отцу) брата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КНДР. До сих пор не выяснено, кто стоит за этой ликвид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е службы сразу же указали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режим. Однако нет никаких веских доказательств, указывающих на того или тех, кто заказал это громкое убийство.

На днях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змещению THAAD (англ.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нового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о возможном размещении новейших средств американских ПРО вызвал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езкий протест Пекина и Москвы. В итоге, между Пекином и Сеулом возникла остра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Китае прошли демонстрации с лозунгами «NO THAAD!»,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ам объявлен бойкот, универмаги корейской сети ЛОТТЕ терпят убытки, сократилось число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в Южную Корею. Антискорейские настроения выразились в надписях, появившихся в некоторых ресторанах Китая: «Мы не обслуживаем клиент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как угроза прозвучало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военного эксперта из Пекина,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егион, где находится батарея THAAD, будет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целей для удара китайск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Президент Трамп, обещавший разобрать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признал, что нынешний «Пхеньян – это проблема». Появились сообщения, что Вашингто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план физического устран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вождя, если его неконтролируемые действия представляют реальную угрозу Америке и ее союзникам. Неслучайно глава кита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Ванг Йи сравнил возникшую между США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итуацию с двумя поездами, несущимися навстречу друг другу. По его мнению,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лобов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обеим сторонам нужно пойти на уступки. Американцам отказаться от размещения THAAD и совместных с Южной Кореей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а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екратить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Офици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читают сравнения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итайского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неуместными и неприемлемыми. Никки Хэйли – постоя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в ООН заявила, что «все варианты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же предлагались», что касается мистера Кима – «мы не имеем дел с иррационально мыслящим человеком. Мы видим это невероятное и безответственное высокомерие, исходящее сейчас от Ким Чен Ына».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как всегда, строго осудил последние запус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стереотипно назвав их грубейшим нарушением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бязательств, провоцирующими новые риски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ответ Пхеньян, как всегда, отверг заявление СБ ООН и заявил, что ракетные пуски являются «оправданной мерой в то время, как США и Южная Корея проводят 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ые манёвры, нацеленные против КНДР». Круг, как говорится, замкнулся...

Герман Ким,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истори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исследо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гук (Сеул),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ой секци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та по мирному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17-ого созыв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окуратура допросила экс-президента РК Пак Кын Хе

Пак Кын Хе, отстранённая от долж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в результате импичмента, подверглась допросу в прокуратуре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Сам допрос продолжался почти 14 часов - с 9:35 до 23:40 21 марта. Затем Пак Кын Хе в течение семи часов знакомилась с протоколом допроса, внося в него ряд поправок.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в ходе допроса она отвергла предъявленные ей обвинения по всем 13 пунктам, включая коррупцию,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е властью и умышленный допуск утечк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екретов.

В итоге следствие не смогло подтвердить ни одно из выдвинутых обвинений. Адвокаты Пак Кын Хе уточнили, что аудио- или видеозапись допроса не велась. В тот же день на допрос вызывали близкую подругу экс-президента Чхве Сун Силь, бывшего старшего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по политическим вопросам Ан Чжон Бома и бывшего личного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ента Чон Хо Сона. Однако они не явились, сославшись на причины л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В прокуратуре отказались отвечать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планировался ли перекрёстный допрос с участием Пак Кын Хе. Теперь прокуратура, как ожидается, займётся рассмотрением материалов допроса, после чего будет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затребования ордера на арест экс-президента.

Операция по подъёму парома «Сэволь» идёт успешно

Рано утром в четверг корпус парома «Сэволь», затонувшего три года назад у западного побережь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казался над поверхностью воды.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 подъё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помощью гидравлических домкратов, установленных на двух баржах. В 3:45 утра над водой показался стабилизатор судна, а к 7:30 утра стала видна центральная часть правого борта.

В среду днём был осуществлён пробный подъём, когда корпус был приподнят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тров над морским дн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нормальная работа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дъёму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балансировка корпуса, выполненная водолазам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 поверхность воды будет поднято не менее 60% корпуса, судно будет отбуксировано к острову Чиндо и перегружено в плавучий док. Около шести дней потребуется для его правиль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в доке и откачки воды. На последнем этапе его доставят в порт Мокпхо,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в 87 километрах от места трагедии. Там паром будет поставлен в сухой док, на что потребуется ещё порядка четырёх дней. 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аботы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и выяснению причин катастрофы могут быть начаты не ранее чем через 2 недели.

Паром затонул в Жёлтом море 16 апреля 2014 года на пути из Инчхона на остров Чеджудо. В результате катастрофы погибли 304 человека, 9 человек продолжают числить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Подъёмные работы стоимостью 72 млн доллар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китайский консорциум во главе с компанией Shanghai Salvage.

Пхеньян привлекает инвестиции в Кымгансанс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ек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ытается привлечь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организацию морских круизов для посещения гор Кымгансан, где туристическим компаниям может быть дано разрешение на открытие кази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коммерчес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опубликовано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сайте «Кымгансан».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иностранная компания или консорциум могут осуществлять круизы, инвестировав от 10 до 20 млн долларов в течение 10 лет.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два маршрута для круизных судов: Владивосток – Расон – Вонсан-Кымгансан и страны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 Кымгансан – Вонсан.

Туристическая программ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стартовала в ноябре 1998 года, а в 2008 году была закрыта, когда одна туристка была застреле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олдатом. В апреле 2011 года СК лиши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ператора Hyundai Asan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прав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а затем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зоне гор Кымгансан, открыв их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RKI)

В Пхенчхане полностью проверили объекты к Олимпиаде-2018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енчхан, Каннын)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0)

"Конечно, мне трудно предвидеть абсолютно все ситуации, может тут неожиданные ураганы бывают, я не знаю. Но общее впечатление от трассы хорошее. Мне понятны ее особенности, мы на ней достаточно потренировались, понятно как бежать. По поводу стрельбища тоже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какие-то большие неожиданности бывают. В целом сказал бы так: вся трасса очень справедливая и позволяет победить тому, к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вляется сильнейшим, не позволяя "свалить" какие-то ошибки на "коварство природы", - отметил спортсмен.

Зарубежные биатлонисты также признали, что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которые были выявлены в 2009 году, когда в Пхенчхане состоялся чемпионат мира. "Тогда нарекания вызывал один из спусков, который требовал чуть ли не горнолыжной подготовки. В 2009 году на нем многие попадали, сломали лыжи и палки, а не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и травмы. Но теперь мы видим совершенно иной склон: его сделали более пологим, что и требовалось. То есть претензий к трассе уже нет", - отметил серебряный призер в спринте американский биатлонист Лоуэлл Бэйли.

Сменившая гражданство и выступающая теперь за сборную Южной Кореи по биатлону экс-россиянка Анна Фролина (Булыги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трасса в Пхенчхане для нее стала родной.

"Я ее знаю очень хорошо - каждый подъём, каждый бугорок, спуски. Она для меня фактически стала родной", - сказала он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В то же время Фроли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для стрельбы Пхенчхан является наверное самым сложным местом из всех этапов Кубка мира. "Здесь временами бывают очень сильные ветры, мощные порывы. Здесь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а потому ветру есть где разгуляться. Часто он непредсказуем", - признала она.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го в феврале 2017 года этапа Кубка мира по лыжам в Пхенчхане, где россияне взяли сразу три "золота" и две "бронзы", была также опробована и трасса для лыжных гонок, которую спортсмены назвали "сложной, но интересной".

"Трасса непростая. Она требует хорошей выносливости. На ней есть два серьезных подъема и динамичные спуски. Впрочем, этим она и интересна", - отметил российский лыжник Андрей Парфенов. Его коллега Глеб Ретивых же сказал, что трасса требует "постоянной концентрации, не позволяя где-либо расслабиться". Один из тренеров сборной РФ по лыжам был еще более категоричен: "...Трасса убойная, тяжелая. Обычно один тяжелый подъём на старте, здесь два. Так что о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ложная", - отметил специалист.

Наши лыжники также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снег Южной Кореи. "Это трудно объяснить тем, кто не бегаёт на лыжах, но мы - лыжники - это прекрасно чувствуем. Снег здесь сухой какой-то, непривычный большинству из нас, к нему надо привыкать. Может это из-за климата, может еще из-за чего-то, но однозначно своеобразный", - сказал в беседе победитель этапа Кубка мира Петр Седов.

В Пхенчхане наряду с наши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и целая бригада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оценивали как сами объекты, так и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Как 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лыжных гонок России Елена Вяльбе, это была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нюхать" корейский снег, протестировать лыжи, мази, парафин". Судя по реакции лыжников и биатлонистов, "понюхать" и "пощупать" снег и лед получилось в полной мере.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атлеты благодарили сервис-бригаду за хорошее скольжение лыж, а это значит, что "кудесники мазей и парафинов" смогли подобрать ключ к корейскому снегу. Конькобежцы и шорт-трекисты также сказали, что у льда в Корею есть особенности, но им удалось понять и привыкнуть к ним. 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надеяться на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главных стартах через год.

Проблемы: еда и проч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комитета, конечно, можно понять - они иностранным журналистам всегда пытаются показать "товар лицом", подчеркивая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тороны и не особо акцентируясь на проблемах. Здесь, впрочем, большими "помощниками" в поисках проблем зачастую выступают сами же корейские СМИ. В процессе подготовки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тошные 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неоднократно выявляли те или иные слабости, указывая на них. Именно корейские журналисты, в частности, в свое время забили в набат по поводу проблем с финансировани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с санно-

бобслейной трассой. Выводы были сделаны, но все же некоторые накладки остаются, о чем рассказали разные участники - как спортсмены, так и журналисты и простые болельщик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кто побывал в Пхенчхане во время тестовых состязаний.

Сразу скажем, что от очень многих спортсменов доводилось слышать жалобы на то, чем их кормят в Корею. Далеко не у всех желудки приняли местную еду. "Я определенно не могу привыкнуть к тому, чем здесь кормят. Выискиваешь что-то европейское, но все равно пища имеет какой-то специфический привкус, который не нравится моему желудку.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блема", - сказал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биатлонистка Ирина Услугина.

Ее поддержа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члены сборной РФ по биатлон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да не нравится. Какой-то ком в желудке после еды, даже от обы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ожет еще что-то добавляют, может в другом причина, но с питанием здесь проблема", - отметила биатлонистка Татьяна Акимова. Были жалобы и со стороны лыжников. Биатлонист Антон Шипулин же сказал, что кормят "в целом сносно". В качестве худшего примера по части питания на Олимпиадах он вспомнил Ванкувер-2010.

Понятно, что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критерии будут строже, но, как видно, вопрос с питанием оказался непростым для корейцев, хотя им указывают иностранные спортсмены на это как минимум с 2009 года, когда в Пхенчхане был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биатлону.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вызывают природные условия. Биатлонистка Анна Фроли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нелегко будет гарантировать наличие снега на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Мы-то успеем, в феврале, когда будет именно Олимпиада, снег тут есть или хотя бы его привезут, а вот в марте все начинает быстро и резко таять. В середине марта вообще снега может не быть. Не знаю, как организаторы будут это решать, но им точно надо подумать над этим", - отметила "новая корейка".

Суд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и болельщиков, у корейцев до сих пор есть проблемы с владением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хотя так или иначе проблемы решаются.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иностранных волонтеров. Как сказа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именно россияне активнее других подают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Олимпиаде-2018 в качестве волонтеров. "Четверть всех заявок поступило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из России. Это больше, чем из любой другой зарубежной страны", - отмет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игр.

Корейцы также пообещали, что для разрушения языкового барьера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ключая роботов и новейше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в виде приложений, которые можно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 скача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По-прежнему у мног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зывают сомне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рейцев обеспечи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 как спортсменов и членов делегаций, так и болельщиков - гостиницами. Новые отели строятся, возводится Олимпийская деревня, но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наплыв будет слишком велик, а потому может придется размещать не только в Каннын и Пхенчхане, а также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что удлинит дорогу. Это касается болельщиков, а не спортсменов. Последних гарантировали поселить так, чтобы им было добраться до места состязаний не более получаса.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в подготовку к Олимпиаде вмешалась и политика. "Серый кардинал в юбке" Чхве Сун Силь, которая была близкой подругой экс-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приложила руку и к спортивной теме. По слухам, именно она настояла на отставке первого главы Оргкомитета, что смутило многих и привело к определенной неразберихе. Не добавил спокойствия и весь скандал вокруг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ый в итоге стоил Пак Кын Хе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кресла. Впрочем, здесь повезло, что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уже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стадии, когда почти все было готово, а бюджеты утверждены.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ые перемены пришлось внести. Например,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коррективы неизбежны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гр.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ая лишилась кресла президента, не сможет открывать ОИ-2018, что планировала сделать, учитывая, что ее "плановы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во власти должен был завершить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то есть под занавес Олимпиады.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нялась на 20 строчек в федер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обеспеч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портив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 оценке занимает в нем 38 место.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входящих в соста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 третье.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в ходе отраслевой коллегии областного ведомства, курирующего вопросы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итоги рабо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в текущем. Отмечено, что почти 40 процентов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т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начительно опережает нормативы, установленные для него федер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порта. Выросл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и доля граждан,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по месту работы. Она составляет 32,1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нятого в экономике. Увеличилась численность инвалидов и лиц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занимающихся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Все это – результат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й работы по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опаганде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Как отметила, открывая заседание коллегии, Вера Щерб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ортивная отрасль –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Это наглядно подтверждают цифры. В 2016 году общий объем средст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реализац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14-2020 годы» составил почти 6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бъем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отрасли будет сохранен.

– Это накладывает на вас больш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 подчеркнула Вера Щербина,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ллегии. – Ваша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эффективное расходование выделенных средств.

Как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нтон Зайцев, несмотря на наблюдающийся в области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спортсменов и физкультурников, некотор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числятся отстающими. Среди них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Смирныховский, Тымовский,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ы. Вопреки ожиданиям снизилась до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 физкультурников среди жителей Северных Курил.

Ведомство планомерно решает вопрос развития кадров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апример, с начала года введена совершенно нов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 работ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спортив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министерству. Предусмотрено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еханизма целевого обучения в учреждениях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года, пять человек будут учи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Физ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Установлены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поощр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тренерам за подготовку спортсменов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Также выплаты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остигших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и их наставников.

В течение 2016 года в области в стад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находились 47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По 24 из них работы завершены.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на горе Большевик построены две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горнолыжные трассы, нача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комплекса. Возведены горнолыжные подъемники в Холмске и Горнозаводске, трамплин К-7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Введе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19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в вось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Продолжилос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тадиона в Смирных, центр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Томари,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оронайске. Началась реконструкция хоккейных кортов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и Курильске.

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возведению ледовой арены и трех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ереулке Алтайском. Также начался процесс реконструкции стадиона «Космос». Между тем, отметил Антон Зайцев, власти ряда районов не сумели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организ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 Развитие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местных властей, – сказала Вера Щербина. – Поэтому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должны взять эту работу под личный контроль. Мы также сейчас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бы т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не используют в полной мере деньги, отпущенные им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спортивную сферу, лишались этих средст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эры, которые не уделяют должного

внимания этой теме, наносят ущерб интересам жителей своих районов.

На 2017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ее 40 объектов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сумму более 3,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вательного бассейна в Невельске, лед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Макарове и Ногликах, крытых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ов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Шахтерске, стадионов в Охе и Углегорске. Кроме капитальных строений,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велосипедные трассы, пешие тропы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с высокой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ью, доступные для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Министерство пересматривает подход к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Оно намерено шире привлека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вне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За счет частных инвестиций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в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хостела и спортив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районе биатлонного центра, завершится возведение спортивного центра «Восток».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е чаще становится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значим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в том числе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реди них – Far East Cup – этап Кубка Азии по горным лыжам, этап Кубка России по сноуборду и горным лыжам. Значимым событи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стало получ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права на проведение первых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В области прошли первен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о сноуборду, бодибилдингу, бокс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кенд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смешанным единоборствам (ММА) и многим друг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В 2017 году спортивное ведомство планирует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е участие всех районов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их участников. Еще одна задача поставлена перед муниципалитетами. Каждый район должен организов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уникальное массовое физкультур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танет для него знаковым.

Подводя итог обсуждению, Вера Щербина отметила, что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эффективных сред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готовятся к весенне-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В хозяйствах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приобретение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семян овощных культур и трав, проведена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очвы, завозятся сельхозтехника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приятия области, включая фермерские хозяйства, планируют вырастить 100 тысяч тонн картофеля и 46 тысяч тонн овощей открытого и закрытого грунта.

Семенной картофель на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меется в необходимом количестве.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его каче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обрести элитные семена – 475 тонн. Вся посевная площадь, включая многолетние травы прошлых лет, в этом году составит 24677 гектаров, это на 1182 гектара больше, чем в 2016 году.

–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за счет повышения урожайности в целом по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 картофеля планируем собрать на 937 тонн больше.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сезоне высадим больше кормовых культур: однолетних и многолетних трав, озимых, кукурузы. Это важно в связи с реализацией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еред нами стоит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животных качественными кормам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Плановый объем заготовки кормов в 2017 году почти 150 тысяч тонн, это в полтора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Готовность тракторов к весенним полевым работам составляет 100%,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ашин – 91%.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требовал в оставшееся до начала полевых работ время завершить все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и обеспе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посев в оптимальные сроки.

О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без модернизации и технического переоснащен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евозможно добить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поэтому поддержка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останется приоритетной.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озмещени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м процентной ставки по кредитам и займам, субсидирование затра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ехники до 50%.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ся помощь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малых средств механизации личным подсобным хозяйств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отовятся ввести новые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малоимущие семьи с детьми будут раз в квартал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ать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17 тысяч таких наборов уже подготовлено. А молодым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компенсируют затраты на покупку коляски и комплектов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была озвуче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вопроса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Как доложила,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депутатами,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в 2017 году бюджет ведомства увеличился на 8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 составил в целом 13,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Это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вводом в действие с 1 янва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итог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х насчитывается свыше 120.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месте с тем, в ходе встреч губернатора с жителями региона был обозначен ряд острых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многие семь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результате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еще один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 Они должны помочь людям сгладить трудные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 сказал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 Сред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адресна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молодым малоимущим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ребенок,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затрат, связанных с приобретением коляски и комплекта для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денежная выплата на уплату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взнос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и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илья семьям, заключившим кредитный договор (договор займа) с «Сахалинским ипотечным агентством». Также мы предлагаем расширить перечень направлений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атеринского капитала с четырех до восьми.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 эти деньг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свое жилье, приобрета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а также по выбору получать из них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5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ежеквартальную – 1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и расширении перечня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лагае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 уточнить критерии нуждаемости граждан. Это позволит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те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в не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даются, не увеличивая бюджет министерства в условиях сокращения доход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такой подход не является новы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имер, в 2014 году было ограниче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го пособия на детей, чьи родители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без уважительной причины не работают и не состоят на учете в службе занятости.

– Предлагается, исходя из принципов адресности и нуждаемости, приостанов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емьям, не имеющим статуса малоимущих, ежемесяч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олноценным питанием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рех лет и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первого ребенка,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 А ежемесяч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питанием предоставлять только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имеющим статус малоимущих.

Для тех, кт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уже пользуется эти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ничего не изменится, уточнил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При этом семьи, не имеющие статуса малоимущих, все равно не останутся без помощи. Они по-прежнему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выплаты, размер которых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ерьезно вырос. В част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положенный всем без исключения семьям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величился с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2011 году до 204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на 36 процентов. Ежемесячная выплата на детей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за этот же период выросла более чем на 70 процентов. А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в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ьях увеличилась с 5 тысяч до 57 тысяч рублей.

Сэкономить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и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осуществление нов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ит также отказ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от индексации ряда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Например, сумма, которую получает семья при усыновлении детей-сирот и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попечения родителей, останется прежней – 710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будет и в случае усыновления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 1,149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 В случае внедрения критерия нуждаемости никто не останется совсем без поддержки, – сказала 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Наталья Коршунова. – Сегодня все семь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 рождении ребенка получают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как федеральный, так и региональный. Разве мы их оставляем в стороне? Абсолютно нет. Молодые семьи раньше получали пять тысяч рублей. Год назад сумма выплаты для них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ыросла очень существенно. И это тоже значимая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приняли предложен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в первом чтени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

한반도와 그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건국대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 간사

(3면의 계속)

6자 회담이 중지된 이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회담 참가국들의 역량 배치면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외톨이가 되어버렸고, 중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었으며, 다른 편으로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삼각구도(미국, 한국, 일본)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패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리려고 합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을 해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작년 10월 말에 한국에서는 뇌물 행위와 비밀문건 누설 등 국정문란이라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기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치적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내의 정당들 간의 투쟁, 국민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 참여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국회탄핵의 합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찬성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측근들이 국가사업에 간섭하게 함으로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법으로는 탄핵 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리려고 서둘러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내린 후에 60일간 선거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당들의 선거 준비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대통령 탄핵 전에 <새누리당>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자유한국당>도,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더불어 민주당>도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당들은 더욱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자를 내세우려고 후보자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세력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자의 경쟁력이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뒤 경쟁자는 그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대통령

경쟁에서 전 UN 사무총장 반기문이 승리한다고 예언한 것을 여기에서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후에 반기문은 대통령 입후보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 입후보자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자입니다. 만약 3월초에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유권자의 29%가 투표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 후보자가 뒤를 이어 19%의 투표수를 얻었을 것이며, 3위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11%), 4위에 성남시장 이재명 (8%), 그 뒤에는 국민의당 전 대표인 안철수가 있는데 그는 이전 수준인 7%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경쟁의 선두에 있는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 보다 많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전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간 한국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과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문재인 후보자가 청와대로 입성하는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시작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지했던 엄격한 대북한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북한은 캘리포니아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보다 강력한 핵탄두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안전 등 기타 조건 수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동체는 계속하여 북한의 로켓 및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이 회담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 2월 13일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쿠알라룸푸르 공방에서 북한의 현 지도자 김정인의 이복형인 45세의 김정남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즉각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그 어떤 유력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새로운 미사일 대응 발사체인 사드(THAAD)의 배치에 착수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수단을 한국에 배치하는 한국과 미국 간 회담은 중국과 러시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중

국과 한국 간에 긴장감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NO THAAD!>라는 구호하에 중국에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롯데 백화점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며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중국의 식당 벽에 나 붙은 글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략군 대변인은 "사드 중대가 배치되는 한국의 지역을 중국 전략군의 타격 목표에 포함시켰다." 라고 위협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미대통령 선거전에 김정은을 설득해 보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문제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만일 제멋대로 하는 김정은의 행동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게 실제 위협을 주는 경우에는 북한 지도자를 타격할 계획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외교장관)이 북미간 관계를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들과 비유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양측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사드 배치와 한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포기해야 하며, 북한은 핵미사일의 실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 행정부의 공식 대변인은 중국 외교장관의 비교와 제의가 적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UN의 미국 상설 대표 니키 헤일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모든 방안을 이미 제의한 바 있다" 고 설명하고, 김정은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불합리하게 사고하는 사람과 교섭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믿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방자함을 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엄격히 규탄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 불안정화의 리스크를 새로이 도발하는, 국제의무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여전히 UN 안보리의 성명을 거부하고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을 향한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이러한 상황의 연속으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9

이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다

(전화의 계속)

(2) -(으)르세라 "Думая, что..." "считая, что...", "предполагая, что..."

Примеры:

- 버스를 놓칠세라습도 쉬지 않고 뛰어갔다.
→ Думая, что пропущу автобус, я побежал быстрее.
그의 마음이 아플세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Предлагая, что это может огорчить её, я не сказал ни слова.
집이 무너질세라 재빨리 뛰쳐 나갔습니다.
→ Предполагая, что дом развалится, мы выбежали из него.

(3) -(으)르진대 "если..., то..."

Примеры:

- 제대로 된 지도가 없을진대 어떻게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어요?
→ Как можно написать хорошую диссертацию если нет хорошего науч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 줄진대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 Если столько людей помогает, то и стыдиться её не нужно.

(4) -(으)라 -(으)라 "и... и..."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актически одновременное совершение различных действий.

Примеры:

- 이 사람도 만나라 저 사람도 만나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 Я очень занят, встречаясь то с одними, то с другими.
학교도 다니라 아르바이트도 하라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 И в институт надо и на работу: весь день продыху нет.

(5) -(으)라마는 "навряд ли..., но..."

Примеры:

- 이 시간에 그가 집에 있으라마는 그래도 가 보자.
→ Навряд ли он будет дома в это время, но все равно давай сходим.

영이가 일을 다 끝냈으라마는 그래도 연락해 봐.

→ Вряд ли Ёни закончила работу, но все равно позвони.

그가 완벽하라마는 일단 믿어 봅시다.

→ Не думаю, что он идеален, но все равно давай доверим ему.

쓰기연습

1. 보기와 같이 '-(으)르망정'을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그는 몸은 허약하다 / 의지는 굳세다.
→ 그는 몸은 허약할망정 의지는 굳세다.

- (1) 그들은 가난하다 / 자존심을 굽히지는 않는다.
→
(2) 누나는 비록 여자이다 /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다.
→
(3) 할아버지는 학교는 못 다녔다 / 지혜가 많은 분이시다.
→
(4) 나는 차라리 굶어 죽다 /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는 않겠다.
→
(5)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 / 생각하는 것은 깊다.
→

2. 보기와 같이 '-(으)르세라'를 사용하여 밑줄친 단어를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도둑은 불잡히다 / 젼싸게 달아났다.
→ 도둑은 불잡힐세라 젼싸게 달아났다.

- (1) 그 여자는 갓난아가가 깨다 / 조용조용히 말했다.
→
(2) 철수는 낙제하다 / 열심히 공부했다.
→
(3) 선생님께서서는 러시아 출장을 가시면서 감기라도 걸리다 / 두꺼운 옷을 많이 준비하셨다.
→
(4) 수업에 방해가 되다 / 교실 창문을 조용히 열었다.
→
(5) 행여나 깨지다 / 향아리를 조심조심 옮겼다.
→

3. '-(으)르진대'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 (1) 내가 보다 / 우리 동생은 올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
(2) 친구의 도움이 전혀 없다 / 어찌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х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приглашают в "Мир финансов"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образование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являет о начале конкурса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на тему "Мир финансов".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реди учащихся 9-11 класс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целью повыш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грамотности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навыков составления личного или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как одного из средств достижения финансов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нкурсантам предстоит подготовить электронную презентацию на бюджетную тематику по одной из четырех номинаций:

Мои карманные деньги — начало пути к финансовой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Мой личный вклад в бюджет моей семьи.

Откуда берутся деньги?

Как тратить деньги?

Конкурсные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с 20 марта по 17 апреля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Ленина, 111, ИРОСО, кафедра гуманитарных дисциплин (каб.111), а такж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kafedrago.iroso@mail.ru с темой письма "Конкурс творческих работ "Мир финансов".

Итоги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20 апреля. Победители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и ценными подаркам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фина.

Сахалинцу, 4월에 <올해의 가족>콩쿠르 출발

2017년 сахалин주에서 сахалин주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올해의 가족>콩쿠르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сахалин주사회보호부가 주관하여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가족의 가치와 부모의 책임성과 결혼의 장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콩쿠르는 3 가지 기본부문(<다자녀 가정>, <젊은 가정>, <가족은 전통의 보유자>)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자격은 러시아 국민으로서 공식적으로 결혼하여 сахалин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쟁에 참가할 수 있다. 첫 두 부문에서 참가자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동반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 부문에서는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 <젊은 가족>은 부모의 연령이 35세 이하로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참가가 가능하다. <가족은 전통의 보유자>라는 부

문에서는 전통민속문화, 가족의 풍습,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특별한 가문을 우대한다.

콩쿠르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단계는 4-5월에 주내 구역들에서 시작하여 제2단계는 6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고 심사위원들은 정부기관 및 비영리 사회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부문의 우승자들에게는 상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지역 콩쿠르 최우승자는 전국 <올해의 가족>콩쿠르에 진출하여 참가하게 된다.

<올해의 가족>콩쿠르에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각 거주지 사회복지센터를 찾아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참가자 등록은 4월 15일까지다.

В апрел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ует конкурс "Семья года"

Сахалинцы с детьми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Семья год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Иници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едомство еще раз хочет напомнить о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ях, ответственном родительстве и плюсах женитьбы и замужества.

Конкурс проведут по трем основным номинациям: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Молодая семья" и "Семья —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Участниками состязания могут стать россияне, живу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в официальном браке. В первых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наличие детей обязательно. В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ьях" ждут пап и мам, у которых есть пять и более детей, в том числе приемных. Молодые семьи могут иметь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но есть важное ограничение — возраст супругов не должен превышать 35 лет. В номинации "Семья — хранитель традиций" ждут тех, кто сохраняет тради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обычаи семьи, историю своего рода, чти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династии.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Первый стартует в апреле-мае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второй — пройдет в июн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состав жюри войд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бедителям в каждой номинации вручат диплом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Побе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отправи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Семья года".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написать заявку. Регистрация конкурсантов продлится до 15 апреля.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 (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